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 / 여수룬

Ⅰ. 성경적 설교

1556년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서(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다. 450년이 지난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고 있는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팟캐스트인 ‘에고 에이미’는 두 번째 대담인 한국교회의 설교편에서 한 대담자는 “설교자는 단지 본문을 해석 전달해주는 역할이어야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는 것은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인 분위기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의 설교는 단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구원 사건이었다.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해했다. 말씀 선포가 곧 구원의 활동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설교자는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라는데 있다. 오늘날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지 않았고 친히 본 것을 전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설교자와 설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메시지이다. 설교자가 선지자나 사도가 전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설교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말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설교를 사용하신다. 성경적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며 설교자의 권위는 소명이나 직임이 아닌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에 달려 있다. 설교자가 성경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신념이나 사상을 설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때 설교자의 권위는 물론 성경과 기독교의 권위도 상실될 수 있다.

성경의 바른 해석과 성경적인 설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강해설교는 성경의 본문의 기록자가 마음에 갖고 있었고 또한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본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실제의 의미를 밝혀내서 그것을 오늘날의 청중의 필요에 적용시키는 식으로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것이다. 성경 본문이 설교하려는 내용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주인이 되어야한다. 성경적 설교란 내용과 형식이 모두 성경적인 설교이다.

Ⅱ. 성경 해석

성경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바른 성경 해석은 필수적이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기독교 신앙은 고상한 사상이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서구의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서 비평 방법을 통해 성경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놓아 성경 본문 자체가 오늘날의 청중들과 관련되어 있도록 말하는 것을 방해했다. 성경을 총체적인 해석 방법만이 성경을 정당하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성경을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며, 성경본문은 궁극적으로 그 성격이 '신학적'이며, 또한 성경은 문학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1. 문학적 해석

성경은 역사의 과정 속에 주어진 점진적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계시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을 동반한다. 구원은 언제나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들로 결정되는 각 시대에 따라 진행된다. 성경은 각 시대마다 구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을 해석할 때 그것이 속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서 본문의 의미를 설명해야한다.

그런나 설교자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발전단계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복음적 진리'일 수는 없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되었을때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 성경은 정적인 개념이 아닌 계속 앞으로 움직여 가는 점진적인 계시이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계속 추구하여, 씨앗이 자라나 꽃으로 활짝 피어난 메시지를 찾아야한다. 이것을 **충만한 의미(센수스 플레니오 sensus plenior)**라고한다.

브라운(Raymond Brown)은 "충만한 의미는 인간 저자에 의해서는 분명히 의도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더 깊은 추가적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그 본문의 용어들 안에 들어 있으며 이 용어들은 그 이후에 주어진 계시에 비추어 연구할 때 눈에 보이게 되는 의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성경에서 충만한 의미를 찾는 것은 성경에다 신학적 교리나 가르침을 집어 넣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성경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등)를 찾아 내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점진적인 계시로 구속사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박순용 목사님이 "복음으로 성경 읽기" 설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경안에서 충만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본문에서 '충만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설교자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감으로 해석이 남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가 완성된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성경을 해석함으로 성경의 충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성경이 정경화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2. 역사적 해석

성경 본문이 역사적 기록이므로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야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장소와 및 문화에 비추어 이해해야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해석은 성경 기록이 쓰여진 때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문학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기록의 메시지를 그 원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그 기록에 대해 자세히 역사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다. 역사적 해석은 성경 말씀을 원래의 의도와 의미에 맞춰 이해하려는 것으로 그 말씀을 원래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역사적 해석 방법은 성경 말씀들은 그 청중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록된 말씀의 배후에 있는 어떤 이유나 까닭을 파악하게 된다. 역사적 해석방법은 어떤 구절의 기록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성경말씀을 원래의 의도와 의미에 맞춰 이해하려는 것으로 그 말씀을 원래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설교자는 성경의 본문을 주관적이나 독단적으로 해석할 위험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상황을 떠난 본문은 설교자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되며 적용될 수 있다. 역사적 해석방법은 본문의 의미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제 수단이 된다. 또한 본문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안에서 본문이 제시하는 특정한 관점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한다.

설교자는 본문의 역사적 맥락뿐 아니라 역사 전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안에서 살펴야한다. 성경은 모든 피조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실재를 포괄하는 하나의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완성의 때로 나아가는 것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비전은 곧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의 구세주나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 이상의 존재이심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심과 세상을 회복하심에서 모두, 하나

님과 세상 간의 중보자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다. 창조계 회복의 비전은 성과 속, 세속사와 구속사를 나누는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문학적 해석에서 성경의 '충분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 처럼 성경의 모든 본문을 하나님 나라 역사라는 웅장한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 구약성경에서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밑바닥 차원)는 적어도 세상 안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좀 더 큰 이야기(가운데 차원)의 한 부분이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계에 대한 그분의 구속이라는 궁극적인 이야기(꼭대기)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궁극적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을 관통한다.

3. 신학적 해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적 해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즉 그분의 활동, 그분의 뜻,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와 자신의 백성들과 갖는 관계에 관한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인잔 저자의 의도를 뛰어 넘는 충만한 의미가 있다. 충만한 의미라는 사상은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해야한다는 종교개혁의 원리와 연관이 있다. 성경의 통일성과 함께 성경 본문은 반드시 그 문맥인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이 어떠하심, 자신의 활동들, 자신의 뜻 등을 알려주시려고 의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분문이든지 해석할 때 물어보아야할 중요한 질문은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다.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광대한 사역들, 즉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장차 행하실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이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 해석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성경 전체의 초점인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을 잘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은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나 설교와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인물 중심의 설교는 교묘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초점으로 바뀐다. 성경이 대부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행동을 한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또한 불완전한 인간들을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경의 인물들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해야한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연관되도록 하려면, 알레고리 해석이나 제 맘대로 푸는 식의 모형론적 해석과 같은 함정을 피해야한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오해해서 모든 분문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본문과 예수님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의 핵심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줄을 그어 연결하는데 있지 않고. 그것에 앞서 그 반대 방향으로, 즉 신약 계시의 충만함으로부터 구약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움직이는 것이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성경을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해석 방법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다. 본문의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르,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를 통해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충만한 의미',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할때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살아나는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성경적 설교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할지가 설교자의 기본적인 고민이다. 성경은 연속적으로 강해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때는 본문의 선택에 대한 고민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연속으로 강해한다고 해도 설교 본문을 어떻게 나눠야하나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저자는 성경적인 설교의 한 방법은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를 제시하고 있다.

1.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란 설교의 주제가 성경 본문에 근거한 설교를 의미한다.

1) 설교 본문의 선정

설교 본문은 그 한계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지나친 상상에 빠지지 않게 하며, 반면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자극 시키므로 상상의 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설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임으로 설교자는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살피며 설교 본문을 선정하게 된다. 교인의 필요를 피상적으로 진단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가 알게 된 모든 필요에 일일이 어떤 대답을 주려 해서도 안 된다.

본문 선정에서 설교자의 편애에 따른 위험이 있다. 본문 선택이 한정된 좁은 범위에만 집중되므로 설교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반드시 성경 계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을 선택해야한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설교자는 본문을 선택할 때 더 중요한 본문을 먼저 택해야한다

교인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라고 해서 소비자 중심적인 설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그들에게 더 비춰져야할 진리를 분별하여 설교하는 설교자의 책임이다. 또한 설교자는 복음의 핵심 진리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 교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할 신앙의 내용을 설교해야한다. 설교자가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와 성경에 중요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2) 본문의 주제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에서는 설교 본문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설교의 본문은 하나의 완전한 문학적 단위, 하나님이 사상 단위, 하나의 주제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선정된 본문이 하나의 주제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교 본문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갖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선정된 본문 전체가 설교 본문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제를 설정하려면 다른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주도적인 사상을 파악해야한다. 분문 중심의 주제 설교에서는 성경 전체 구조 안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설교 본문의 주제에서 설교의 주제를 끌어내야한다.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한 내용을 설교에 다 담을 수 없다. 그 본문의 핵심 주제를 발견해서 설교를 할때에 본문은 읽고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할 위험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2. 설교의 연관성

설교자에게는 두 지평이 있다. 성경의 분문의 세계와 설교자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이다. 모든 설교는 본문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문화적 간격을 가로 질러 넘어와야 한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본문은 우리와 동 떨어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말씀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연관성있는 말씀으로 성경에 접근해야한다.

1) 원래의 메시지에 집중하라

성경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최초의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 의해 파악된 원래 메시지에 집중해야한다. 성경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그 분문의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갖고 오늘의 청중에게 도달해야한다.

2) 불연속성을 인정하라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교회에 옮겨 전하는 과정에서, 그 메시지는 그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불연속성을 지닌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과 오늘날의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전체를 꿰뚫는 연속성을 인정하라

성경의 불연속성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연속성안에서 작용한다. 성경의 연속성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오직 한분이신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연속성의 근거이다.

처음의 청중들은 위한 메시지와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의 연속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온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심음과 거둠을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역사 속에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해진다.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이러한 연속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된 것이다. 맨 처음 말씀을 받은 자와 오늘날의 청중간의 유사성들을 조심스럽게 찾아봐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사성이 성립되면 그때마다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쉽게 전환시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전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나 1세기의 기독교인은 '모두가 죄를 범했고' 따라서 "은혜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Ⅳ. 성경의 장르

이야기체, 선지서, 복음서, 서선서의 문학 장르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각 장르를 해석함에 있어서 총제적해석(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각 장르별로 설교를 위한 지침을 가져야한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며 그 내용이 맛보기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르의 총제적 해석과 설교 지침에서 많은 내용이 중복되며 반복되고 있

다. 총체적인 성격 해석과 성경적인 설교를 위해서 다양한 보조 자료(주석, 성경 신학, 배경사 등)를 통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책이 내용을 요약하기 보다는 성경 해석과 설교에 있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본문의 선정할 때 요구하는 유일한 조건이 완전한 하나의 문학적 단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설교의 본문은 짧든지 길든지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갖춰야한다. 설교 본문으로 선정된 본문은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든지 하나의 문단이든지 또는 여러 문단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이루어야한다. 성경해석과 성경적인 설교에서는 본문이 완전한 하나의 문학적 단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본문을 총체적 해석(문학적, 역사적, 신학적)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발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리 설교의 필요성과 오늘의 상황 속에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를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고민거리다.

2. 설교가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가 되어야한다.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간 중심적이 설교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3. 성경 저자의 삶의 정황이 우선적이다. 처음 청중, 시대, 배경, 기록 목적에 관해서 역사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처음 청중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듣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주관적이며 임의적인 해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입장이다.

Ⅴ. 마무리

본서를 읽고 난 후 성경 해석과 성경적인 설교를 위해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이지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되었다. 본서를 통해 설교자로서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처럼 바른 성경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온전히 드러나게 소망한다.

제안 1 - 설교자의 설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제안 2 - 본문에서 '충만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설교하거나, 박순용 목사님의 '복음으로 성경 읽기'를 의해 반드시 필요하다. 설교자가 성경에서 '충만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

제안 3 -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할지가 설교자의 기본적인 고민이다. 각자 설교의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필요와 중요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또한 성경에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어떤 본문이 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안 4 - 성경해석과 성경적인 설교에서 본문이 완전한 하나의 문학적 단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본문을 총체적 해석(문학적, 역사적, 신학적)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발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리 설교의 필요성과 주제 설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